저울질과 손가락질 대처법

(다니엘 6:1~28)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13.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14.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5.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16.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저울질과 손가락질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저울질과 손가락질 대처법'

앞장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조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며 탈취해온 금 그릇에 술을 따라 먹으며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왕궁 벽에 새겼는데 이는 곧 "끝났도다! 끝났도다! 무게가 너무 가벼워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울질과 손가락질의 대처법'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사건에 나타난 손가락의 모습을 손가락질로 나타낸 것입니다.

손가락질은 본래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5장의 사건을 손가락질이라고 부를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았더니 너무나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못 미쳤기에 손가락질을 당한 셈입니다. 벨사살 왕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시고 벨사살 왕을 포기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벨사살 왕이 아닌 다니엘에 대해서 같은 의도를 가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자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벨사살 왕에게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질이 나타났다면, 다니엘에게는 대적들의 손가락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울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의 삶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대로 산산조각이 날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저울질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남에 대한 손가락질이 결국은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습관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느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히 민감한 정신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저울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고통은 즉각적이고 쉽게 체감됩니다. 앞서 본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받은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라고 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울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에 느끼는 감정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저울질과 손가락질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서 나타납니다.

세상이 신앙인들을 향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저울질과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상대를 사랑하지만, 상대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고자 합니다. 상대방은 사랑이 없으니 모질고 지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너 밥 먹는 모습이 꼴도 보기 싫고, 네가 숨 쉬는 공간에 같이 있는 것도 싫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를 저울질과 손가락질로 표현해보면 마음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공적인 자리에서 또 사적인 자리에서 저울질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입학시험 입사시험 자격증시험조차도 결국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저울에 나를 달아서 조건에 부합한지를 가려보기 위한 수단입니다. 입사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면 저울질 당하고 상대적으로 쓸모없다고 여겨져서 버려진 것입니다. 또 연예인이나 예술가들은 스스로를 대중들의 저울질에 올려놓는 대표적 직업군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적인 저울질이 아니더라도 사적인 관계나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서 저울질을 당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기준에 맞추어 자신들의 무게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울질은 모조리 가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력이나 외모 혹은 재산의 유무 등이 나를 판단하는 진짜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러한 기준에 판단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기준삼아 사람을 저울질하고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하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합니다. '저울질 해보니 네 삶은 너무나 가볍다! 네 인생은 끝났고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세상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시게 됩니다. 나의 지정의와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갑을 끼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누구도 장갑에게 수고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장갑을 낀 사람이 모든 일을 하고 성취를 이룹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풀과 나무를 만드실 때에 풀을 나무보다 모자라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풀은 풀로써 완벽하고 나무는 나무로써 완벽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처럼 살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사슴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뿐이지 결코 사슴처럼 사는 사람에게 모자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모자랄 수도 없고 잘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수많은 영역에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구분합니다. 불행의 대부분은 우월감과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본문에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고 메대의 마지막 왕 다리오가 왕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는 메대와 바사가 완전히 통합되기 전의 과도기적 상태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으로 나옵니다. 다리오 왕의 사위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제1대왕인 고레스입니다. 당시에 고레스 왕이 정복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장인이었던 다리오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2년간 맡겼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전 정권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그대로 기용합니다.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각 도마다 지방장관을 세우고 그들을 다스리는 총리 세 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이 기용됩니다. 패전국 바벨론의 총리였고 애초에 유다민족의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쓰임 받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마냥 승승장구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납득하기 힘든 인사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승전국의 신하들이 패전국의 총리를 받들어야 하니 그 시기와 질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모함하기로 작정하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저울질과 손가락질이 극심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마음의 무게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달아보셨듯이 대적들이 다니엘을 저울질하고 손가락질하며 파멸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보편적 기준에서는 다니엘을 흠잡을 부분이 없었기에 이들은 다니엘 한 사람을 저울질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을 계획합니다. 당시에 다리오 왕은 이제 막 통치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민심장악에 민감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은 이러한 왕에게 권한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한 달 동안 왕을 신처럼 섬기는 명령을 내리기를 간언합니다.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사람을 섬기는 행위를 한다면 사자 굴에 넣게 함으로써 왕의 권한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옳게 여겨서 왕의 도장을 찍은 금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다니엘 하나를 노린 사건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왕을 섬기기에 앞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이를 노리고 다니엘을 저울질의 기준으로 삼아 손가락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은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연인에게서 이제 꼴 보기 싫다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으로 저울질을 하자 왕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의 무게감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왕을 섬기는 무게감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게 될 운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대처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예루살렘은 함락되어 폐허가 되었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과 번제단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도 그 의미를 되살리며 살아가고 있었고, 세상의 저울질과 손가락질의 위기에서도 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대처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영혼의 무게를 더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저울의 추가 되는 하나님의 기대치는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가지셨던 본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고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성전의 의미를 되살려야만 합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는 계속해서 세상가치들의 이름이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들어와서 더러워진 마음을 죽여서 깨끗함을 되찾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후에 처음 눈을 떠서 만난 대상이 하나님이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전 생활화를 통해 이러한 상태를 이루어 냄으로써 하나님을 모셔 들였고, 하나님의 저울에서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기대치가 저울추가 되듯이, 세상이 우리에게 갖는 기대치가 또한 세상의 저울추가 됩니다. 이 세상의 저울추에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계발, 스펙 쌓기, 고학력 등에 대한 추구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세상이 저울질을 강요할 때에 그 기준에 맞추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오르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저울질과 손가락질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로 측정되어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니엘은 세상으로부터 저울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의연하게 하나님의 저울에서 영혼의 무게감을 늘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상에 대한 시점은 다른 신하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저울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무게를 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사람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감을 높여간다는 것은 곧 마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질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배우자 앞에서 남편이자 아내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대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 가까운 분으로 느끼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신 상태일 때에 하나님의 저울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 그에 대한 태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입니다. 대통령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오직 국가의 수장이라는 직분을 기준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저울을 통해 대통령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전혀 다른 무게감을 느낍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글귀를 해석해주며 느꼈을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나 다리오 왕의 신하로써 그들을 지극히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왕들을 섬긴 것은 왕의 권세를 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들의 신하로써 섬기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고자 하는 왕의 명령에는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에게 왕은 하나님보다 무거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저울질하고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세상이 기대하는 바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라는 취급을 당할지라도 이에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통해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가볍듯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저울에서 지극히 가벼운 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게를 재는 기준이 하나님의 저울인 이상 세상의 기준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가서 애굽의 하부경제를 맡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라는 요구를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는 모세를 우습게 여겼겠지만 모세 또한 바로가 우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를 하나님의 저울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에 대해 홀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자 한낱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병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저울질과 손가락질로 인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신앙인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은 하나님의 저울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바라보는 동안 두 가지 효과가 생겨납니다. 먼저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저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저울질이나 손가락질에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아랑곳하지도 않게 됩니다.

다니엘은 결국 대적들의 계획대로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처하나 없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 세상의 저울질과 손가락질이 결국 모두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저울질과 손가락질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연인에게서 꼴 보기 싫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대기업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대기업 사원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

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신뢰를 부여하자 진실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력이 없고 외모가 없고 재산이 없을지라도 인간으로써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울에서 평형을 이룰 정도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풀이 풀로써 완전하고 나무가 나무로써 완전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했다고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로 인해 자꾸만 마음에 세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의 저울질과 손가락질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힘을 믿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저울질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저울질과 손가락질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의 계획대로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자신을 올려놓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이 죽임을 당하고 산산조각이 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저울질과 손가락질이 거짓된 것이었기에 다니엘은 무사히 사자 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잘 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자기 확신이 생긴다면 세상의 모든 저울질과 손가락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비록 노년이더라도 하나님의 저울에서 영혼의 무게감을 가지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면 지금까지의 삶과 상관없이 평강과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다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저울질과 손가락질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든 왕이든 하나님의 저울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하면 어떻고 병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신하이든 병졸이든 완벽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완벽함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저울질과 손가락질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끊임없이 무게를 늘려가는 것을 생애의 과제로 삼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십자가 자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맞이해야 합니다.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동료들을 비롯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십자가 자아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

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무게를 늘려갈수록 세상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자아의식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부활 자아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를 늘려가는 동안 세상의 저울질과 손가락질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